



“노조법 공포 투쟁은 윤석열 퇴진 투쟁”

노조법·방송법 거부권 저지 총파업·총력투쟁대회 ... “노조법 개정은 국민의 명령”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등이 윤석열에게 개정 노조법·방송법의 즉각 공포 촉구하며, 대통령 거부권 저지를 위한 총파업·총력투쟁을 벌였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등 산별노조 연맹들은 11월 20일 오후 서울 광화문 네거리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한다. 노조법·방송법 즉각 공포, 거부권 저지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열었다.

윤택근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대회사에서 “노동자는 노조 활동 손해배상 가압류로 꺾박당했다. 노동조합 말살 주범 노조법 2·3조 개정은 온 국민의 명령이다”라며 “국민의 명령을 어기고 노동자를 거리로 내모는 정권에 도무지 참을 수가 없어 이 자리에 모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택근 직무대행은 “민주노총은 노동법·방송법 즉각 공포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아 싸울 것이다”라면서 “윤석열이 거부한다면 총파업 투쟁과 퇴진 투쟁을 벌이겠다”라고 경고했다.

홍지욱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투쟁사에서 “2003년 당시 금속노조 경남지부 조직부장으로 두산중공업 민주광장에서 손배 가압류로 인해 분신한 배달호 동지의 시신을 봤다. 참담하기 그지없었다”라며 “이날



부터 금속노조는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해 죽기 살기로 싸워왔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홍지욱 부위원장은 “지금껏 손배 가압류 때문에 수많은 동지를 떠나 보냈다”라면서 “노조법 2·3조 공포 투쟁에 총력을 기울여서 윤석열 퇴진을 앞당기자”라고 호소했다.

개정 노조법, 방송법 공포 투쟁

선언문을 낭독한 노동자들은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 행진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공동대표인 남재영 목사는 광화문빌딩 앞에서 개정 노조법 즉각 공포를 요구하며 단식을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과 시민, 사회, 법률, 인권단체들은 같은 장소에서 문화제와 노숙농성 등을 이어가고 있다.